

투자개방형 병원과 의료관광

한라일보 편집부차장·위영석

1. 투자개방형 병원 천국 태국

태국은 한마디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법인 병원)의 천국이었다. 외국인이 49%까지 병원에 투자할 수 있고 증권시장에도 상장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특이한 점은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국립병원을 곳곳에 세우고 무료로 진료한다는 점이다.

■ 400여개 투자개방형 병원 성업중

태국에서는 영리법인으로 운영돼 규모를 인정받는 사립병원이 4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난 1970년 영리병원이 23개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1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범룽랏, 사미띠웻, 피아벳, 크리스찬병원 등 30여개 주요 병원은 전문적인 특화서비스를 내세우며 성업중이다. 이들 병원들은 대부분 외국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방콕 시내와 휴양지인 파타야 등에 위치해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소유와 경영의 주체는 내국인으로 한정돼 있고 외국인은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도 외국인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만큼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료수준은 최상급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사립병원인 범룽랏병원의 경우 미국의

국제병원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CI)로부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는 등 유명 영리병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JCI 인증이나 ISO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료 인력도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유학한 태국인들을 채용했다.

■ 왜 운영이 잘 될까

태국은 지금은 물러난 탁신 전 총리 시절 전 국민을 30바트(한화 1000원 정도)로 치료해 준 다면서 조금의 진료비를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전 국민 무료진료다. 이를 위해 태국정부는 수도 방콕에 우리의 서울대병원과 같은 출랄롱코른대학병원을 비롯 국립병원 15개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제2의 도시인 치앙마이에도 5개 소의 국립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무료진료인 국가에서 영리병원 운영이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지만 태국의 영리병원들은 수익을 위해 진료비는 일반 사립병원보다도 최고 2~3배까지 비싸게 받는다. 그래도 태국인 부유층과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다. 국립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몰려 진료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싸게 준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룽랏병원의 경우 30%는 내국인이
고 70%정도가 미국이나 중동, 일본지역의 외
국인이다. 사미띠웨이나 피아벳, 그리고 크리
스찬병원등도 50% 내외가 외국인이다.

여기에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물가 등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 방콕이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 관광휴양
지라는 특징 등이 결합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태국인들도 영리병원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국립병원들의 의료수준이 높은데다 무료
이기 때문이다.

범룽랏병원 윈프라세르뜨 홍보담당은 “기본
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만큼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접수에서부터 치
료까지 전혀 불편이 없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태국인들도 영리병원에 대해 전
혀 거부감이 없고 생활정도에 따라 맞는 병원을
찾아간다”고 말했다.

■ 태국 의료수가 자율 결정

태국의 영리병원은 소유와 경영의 주체를 제
주특별자치도처럼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수가는 사립병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이한 것은 영리병원이라도 혈액투석의 경
우 공적건강보험환자에게 의료보험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태국인들의 40% 정도는 직장의료보험
(지정병원 한정)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보험
으로 월급 5%를 내면 지정병원에서 무료진료
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중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태국의 고효율병원은 30여개로 5성급 호텔 수
준의 병실을 갖춰놓고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미용과 스파, 성형수술과 같은 의료서
비스 제공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병원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치과와 심장,
안과 등 특화된 개별적 전문성을 강조한 마케팅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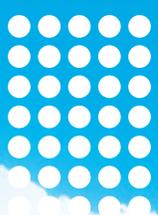
이와 함께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등 의
료서비스 인프라를 강조하고, 의료비가 높은
유럽과 미국 등의 지역과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중동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 메디컬 허브 타일랜드

태국 정부는 2004년 5개년 계획의 ‘메디컬
허브 오브 아시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 및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
리기 위한 것으로 치과와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
비스에서부터 스파서비스 태국마사지, 증장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식품 및 의약, 화장품 등
연관산업의 동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상무부 수출진흥국과 관광청은 공동으로 의
료관광 수출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병원인 범룽랏은 중동의 두바이 경찰청과
후불제 치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휴양리조트와 여가프로그램, 1:1 간호 및 간병
서비스, 스파 등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프리미
엄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병
원측에 항공료와 스파, 마사지를 패키지상품으
로 판매 권유토록 하고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태국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ISO 9001 인
증을 획득하고, 세계적 권위의 미국 국제병원
평가위원회(JCI), 국제병원인증원(IHAD) 등의
인증 획득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의료수가는 유럽과
싱가폴의 50~70% 수준이며, 성형수술은 한국
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10% 수준인
현저히 저렴한 의료비용과 고도의 마케팅 전
략, 다양한 관광인프라 등은 의료관광 마켓 리
더로서의 태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병원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들 대부분은 해외유학파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 자체적인 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사 등 고급 전문인력 확보, 시설 확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병원에는 환자를 외국의 특정 장소에서 병원으로 직접 운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비자처리도 병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창구가 마련돼 있다. 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범룽랏병원은 간호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어를 포함해 12개국 언어 통역요원이 배치돼 있다. 접수부터 전 과정을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건강증진센터를 패키지화해 병목 현상 없이 200명이 1시간~1시간30분이면 진료를 완료하고 1시간이면 모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범룽랏병원 CEO인 데니스 브라운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장소에서 종합치료를 받길 원하는데 범룽랏병원의 접수 후 진찰시간은 11분이면 족하다”며 “영리병원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 의료관광의 모델 범룽랏병원

■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치료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립병원인 범룽랏병원(Bumrungrad)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환자들의 유엔’으로 통하는 호화 병원이다. 매년 유치 환자 120만명 중 43만명은 190개 나라 외국인이다.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인이 주류를 이룬다. 2007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미화 280만달러에 이를



정도다.

대부분 저렴한 가격과 일류급 의료진 외에도 수준급 의료환경시설에 이끌려 범룽랏을 찾고 있다. 이 병원에 외국인 환자들이 몰려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이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을 하는 데 미국에서는 10만달러(약 1억원)가 들지만 여기서도 그 8분의 1 정도면 충분하다. 입원비는 20달러(미국 150달러), 척추수술비는 6000달러(미국 2만달러)로 저렴하고, 건강검진비는 200달러에서 700달러로 미국의 60% 수준이다.

32가지 의료분야에 해외연수경험이 있거나 외국학위를 받은 1000명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인 전문가가 주도하는 국제적인 관리 운영팀이 환자의 상담·접수에서부터 치료, 그리고 요양까지 완벽하게 서비스해준다.

이달 초 취재진이 병원에 들어서자 로비는 특급호텔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우아하다. 도어맨, 소파, 휠체어서비스... 감기 환자도 휠체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유명 식음료점과 제과점이 즐비하고,

특유의 병원 냄새도 나지 않는다.

한국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 통역서비스센터
를 비롯해 외국인의 비자연장 데스크를 운영하
는 국제고객 봉사 센터와 VIP 센터도 갖추고
있다. 개인 병실도 고급 호텔 수준이다. '영어
가 가능하고, 미국·호주에서 교육받은 고급
의료인력 다수 확보, 좋은 시설,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이 병원 광고 문구다.

범룽랏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의
료기관이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대
표적인 병원으로 꼽히고 있다. 2002년 아시아
에서 처음으로 국제병원평가위원회(JCIA)로부
터 인증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의료 관
련 국제학회장에서는 범룽랏 병원의 마케팅 부
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를 돌며 병
원 홍보 로드쇼도 벌인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해외 취재진의 발길이 끊
이지 않자 언론 전담 홍보팀도 따로 구성돼 있
다. 국제고객봉사센터는 외국인 환자들의 입맛
에 맞게 특별히 고안한 원-스톱 서비스센터다.

외국환자와 그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묵
을 수 있도록 병원 구내에 74실의 별관숙소와 수
영장, 휘트니스 시설을 갖춘 51실의 고급 서비스
아파트형 호텔을 두 곳이나 직영하고 있다.

■ **호텔과 영화관 같은 곳에서 세계적
인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범룽랏병원의 규모는 10만평의 면적에
3,000여명의 직원, 외래환자를 위한 특수클리
닉, 그리고 500여개의 입원실, 상담에서 접수
까지 원스톱처리,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서비스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범룽랏병원을 찾는 의료환자들은 의료보험
이 없거나(현재 미국인 중 약 4000만 명은 보
험이 없다), 있어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가 필요한 사람들이 15% 정도다. 이에 따라 진

료비는 다른 영리병원보다 갑절 이상 비싸고 국
립병원보다는 4배정도 비싸다.

하지만 높은 의료비 때문에 대안적 의료서비
스를 찾고 있던 많은 미국이나 일본인 환자들에
게는 싼 가격으로 일류급 치료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태국인들중 부유층들도 국립병원에서 하루중
일 기다리기 보다는 범룽랏병원에서 최고의 서
비스를 받으며 치료받기를 원한다. 환자를 돌보
는 의료진의 질적인 서비스와 대기자가 많지 않
기 때문이다.



3. **헬스케어의 모델 '치바솜 리조트'**

휴양전문 클리닉 리조트를 지향하는 '치바솜
리조트(Chivasom)'는 태국 방콕 시내에서 2시
간 거리에 있는 왕족 휴양지로 유명한 후하헌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은 미국 제1의 스파로 손꼽
히는 캐니언랜즈와 유사한 데스티네이션 스파
(목적형 스파센터, 일명 헬스리조트)다. 즉, 건
강을 위한 리조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조트 취재를 위해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적
막감이 스친다. 고객과 직원들, 많은 사람의 손
길이 느껴지지만 오로지 혼자가 된 듯 그저 고
요할 뿐이다. 생활의 스트레스에 찌든 이들이
고독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되찾는 리
조트다.

치바솜은 1995년 분추 로재너스티엔이라는

태국인에 의해 설립됐다. 전체 57개의 객실시설을 갖추고 70개의 트리트먼트 룸이 있으며 총 85명의 테라피스트가 마사지를 비롯한 다양한 케어를 해준다. 이 곳은 단순한 호텔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사지만 해주는 센터의 개념도 아니다. 우리가 태국을 생각할 때 느끼는 골프도 아니오 레저도 아니오 밤의 유희도 아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는 서울 신라호텔 지배인을 지냈던 스위스출신 폴 린더(Paul Linder)씨가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치바솜에서는 피트니스코스에서부터 스파, 스트레스 치료, 해독코스, 요가, 타이복싱 등의 서비스를 전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으며 3박 코스에서 최고 한달까지 머물며 즐길 수 있다. 물론 한방의 침 치료와 의사들이 도와준다. 가격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어져 있고 3박이 미화 2,000달러 수준에서 객실 수준에 따라 최고 6,000달러까지 다양하다. 한달을 머물 경우 최고 6만4,000달러까지 받는다. 주요 고객은 일본인들과 아랍인, 그리고 유럽, 호주인들이다.

독소해독 7일 코스의 경우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360만원 정도를 받는데 매일 웰빙식단에 맞춘 스파푸드를 먹고 매일 밤 이색적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피라미드 구조 조형물 속에 있는 풀에서 몸을 띄운 채 음악을 듣고 요가를 즐기며 전문코디네이터와 상담을 통해 내 몸의 진단에서부터 자연요법의 적용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위한 여러 재미와 감동을 얻을 수 있다.

필리핀 출신으로 의사인 바우티스타 건강상담 매니저는 “우리와 같은 리조트는 태국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범룽랏병원과 연계, 치료후 회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결혼식 분비 스트레스로 몸과 맘이 지친 신혼부부, 일에 지친 40대 중년, 건강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60대에 이르기까지 치바솜을 찾으며 라이

프 스타일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4. 필리핀의 ‘의료관광’

동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늦게 의료관광시장에 뛰어든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이 점을 십분 발휘해 외국인 환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필리핀 마닐라 시내의 일부 병원은 의료관광전담팀을 구성해 경쟁적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 전략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의료관광위원회도 구성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의료진 확보는 기본

필리핀의 민간병원에는 사이판과 괌, 팔라우 등 마이크로네시아지역과 미국, 일본, 한국, 중동 등 순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찾는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아시안 하스피탈 앤 메디컬센터’는 질병 치료와 함께 예방 및 검진, 상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270병상 규모이지만 심혈관계질환과 암 등 다양한 분야의 치료와 진단이 가능하고, 연구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수 의료진을 선발, 개심수술의 세계적 권위자 등 신생병원임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터 로마노 마케팅 담당이사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영어가 가능하고, 양질의 우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며 “치료를 받은 미국인 환자들은 미국서 치료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다 의사들의 열정과 따뜻함에 놀라 고무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병원의 자량은 필리핀을 방문한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이 병원을 찾았던 일화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사진설명〉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민간병원 '아시안 হাসপিট 앤 মেডি컬সেন্টার'(사진 위)은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환자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화를 기해 외국인 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메디컬센터 로비(사진 아래)에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피아노 연주가 이어지기도 한다

■ 환자 맞춤형 서비스로 차별화

필리핀에는 정부 차원의 의료관광위원회가 구성돼 조만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병원은 이보다 앞서 의료관광전담팀을 구성해 다양한 서비스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이 여행사를 운영해 환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인근 호텔과 협력해 환자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다.

아시안 হাসপিট 앤 মেডি컬সেন্টার는 뇌출혈과 폐렴 등 노인 급성질환과 관련 세계 각국에서 훈련받

은 의사를 내세워 진료하고 있으며, 천식과 알츠하이머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의는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두드러진 증상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 환자에게는 건강검진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주택 호스피스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특히 이 병원은 환자 방문 약속과 등록, 수납, 입원, 가족 숙박, 공항 이동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변 휴양지와 연계한 휴양 프로그램과 맞물려 인기가 높고, 병원이 추구하는 전략과도 부합한다.

■ 휴양지 회복 프로그램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산베니토(The Farm at San Benito) 메디컬리조트는 예방·회복·웰니스를 테마로 5~21일 체류 프로그램과 데이 스파(Day spa)를 운영하고 있다. 5일 기준으로 8만9,200폐소(약 260만원)~26만5,490폐소(약 770만원)로 고가지만 성공한 리조트로 손꼽히고 있다. 이용객 중 내국인은 60%, 외국인은 40%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홍콩(50%)과 싱가포르(40%), 인도(10%), 미국 등 기타지역(10%)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베니토리조트는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식물을 식재료와 마사지 오일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스파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메디컬센터이자 힐링 리조트(Healing Resort)다. 아시아 최초의 히포크라테스 리조트로서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통합 의료시설(대체의학)을 갖춰 웰스케어 타운을 지향하는 제주에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메디컬 베이케이션(5일간의 독소 제거 프로그램)과 음식을 통한 치료 서비스에 고급 스파와 요가, 명상 강좌 등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필리핀의 의료관광을 견인하고 있다.